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미국

- ▶ 뉴욕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망 B-HEARD 프로그램

미국

- ▶ 미국 펜실베니아 주 청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일본

- ▶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과 시사점

프랑스

- ▶ 청년 자립도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청년 지원 사례

한국

- ▶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청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한국

- ▶ 고립·은둔 청년지원정책: 서울형 고립 은둔 청년지원 5대 혁신 사례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과 시사점

개요

-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 : 사회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주로 가정에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
- 일본 현황
 - 5~39세 약 54.1만 명, 40~65세 약 61.3만 명이 히키코모리 상태이며, 효고현 히키코모리 상담 지원 센터가 2019년 접수한 상담 건수는 4,408건으로 40대의 비중(41.8%)이 가장 높음
- 발생 배경
 - 고용 불안, 한부모 가정, 과보호,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체면 중시,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히키코모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포용형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과정
 -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초기 상담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주로 가족 지원으로 시작됨
 - 이후 당사자 상담을 통해 자립, 중간적 사회 참여를 거쳐 취업 지원으로 이어짐
- 본 고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을 개관하고, 지원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1990년대의 히키코모리 지원

- 청년의 히키코모리 상태가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중학생의 등교 거부나 청소년기의 정신적 히키코모리가 증가하면서 비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음
- 1990년대에는 오쿠치¹⁾와 토미타²⁾ 등이 주도한 프리스페이스(Free Space)와 프리스쿨 운동이 대표적임
-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에서 학습과 교류를 지원했으며, 부모의 의식변화를 통해 청년들이 공간 참여나 학교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음
- 하지만, 프리스페이스나 프리스쿨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닿지 않았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는 등교 거부 및 무직 상태의 청년들에게 제3자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 제3자 개입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음. 첫 번째는 쿠도(工藤)^①의 방문지원으로, 가정을 방문해 당사자를 외부로 이끌어내는 방문지도, 공동생활, 취업 훈련을 포함하였음

1) 오쿠치 게이코: 1985년 프리스쿨 '도쿄 슈레' 설립. 1991년에는 도쿄 슈레를 모체로 '등교 거부를 생각하는 전국 네트워크(부모 모임)'을 결성. "아이들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도쿄 슈레를 '쉼터'의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

2) 토미타 후지야: 교사 겸 상담가로서 청소년 상담 활동을 통해 히키코모리 상태의 아이와 성인, 그 가족에 주목함. 현 아이와 가정 교육 포럼 대표.

- 두 번째는 사이트ⁱⁱ⁾의 치료적 지원으로, 가족 상담을 통해 신뢰 관계를 회복하여 당사자가 치료 및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음

2000년대의 히키코모리 지원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히키코모리 증가에 대해 언론 보도도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기 시작했음
- 이 시기에 부모와 당사자를 위한 부모회가 설립되었고, 민간 지원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 대상 상담회, 연수회, 정보 제공, 컴퓨터 운영 등이 있었음
- 2001년에는 후생노동성이 전국 정신보건 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히키코모리 지원 가이드라인ⁱⁱⁱ⁾을 배포하여 공적 상담 창구로서 상담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상담 창구를 찾기 어려웠던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지원 활동은 주로 가족이나 당사자를 위한 지원 시설에서 이루어졌지만, 당사자들은 프리스페이스나 컴퓨터에 나갈 수는 있어도 사회로 나아가거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음
- 이를 ‘자조 그룹 내 히키코모리’로 보고, 외부로 나가도록 돕는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 시기에 후생노동성은 ‘영 잡 스팟(Young Job Spot)³⁾을 개설해 직종 탐색과 이력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면서 취업 지원 중시 경향이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니트(NEET)⁴⁾의 등장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히키코모리 지원이 니트 지원의 일환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음
- 오시마^{v)}는 “정부는 2003년 청년자립·도전 플랜 수립 이후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고용 지원 센터, 고등학교 취업 지도, 커리어 교육, 비정규직 청년의 고용 규칙 및 정규직 근무 방식의 재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함
- 취업 중시가 당사자에게 주는 초조감과 불안감을 우려하면서도,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회복 후 사회 복귀의 한 단계로서 취업을 이끌려는 지원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2010년대의 히키코모리 지원

- 사이트^{v)}는 “장기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사회 참여를 이룬 사례는 가족 외에 이해심 있는 제3자의 개입이 공통적”이라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하지만 일부 당사자나 가족은 심신 불안정, 사회나 지원자에 대한 불신으로 상담을 어려워할 수도 있음

3) 영 잡 스팟(Young Job Spot)은 일을 하고 싶지만 직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교류와 직업 인식 계발, 상담을 제공하는 장소로, 2003년부터 후생노동성이 설치를 결정하였고,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운영하였으나, 2008년 3월 31일에 모든 시설이 폐지되었음.

4) 후생노동성은 “니트(NEET)란 15-34세의 비노동력 인구(일을 하지 않으며, 실업자로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자) 등 주로 통학이나 가사도 하지 않는 미혼자”라고 정의함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09년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통해 전국 도도부현과 정령 지정 도시에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아웃리치 지원을 시작함
- 2017년 기준, 47개 도도부현과 18개 정령 지정 도시(21곳)에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개설됨
 - 하마마츠시에서는 2009년 개설 이후 상담 건수가 116건에서 2015년 1,437건으로 증가함
- 원스톱 상담 창구가 정비되면서 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함
- 한편, 제3자가 아닌 당사자와 경험자들에 의한 활동이 활발해짐
 - 당사자들은 사회에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거나 자조 연구를 통해 증상 개선과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기 시작함
 - 이시카와^{vi)}는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평가함
- 주요 활동에는 자조 그룹, 프리스페이스, 당사자 연구회, 히키코모리 대학 등이 있으며, 일부 단체는 중심 인원의 부담이나 방향성 차이로 지속이 어려워지기도 함
- 2015년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법」 시행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아닌 히키코모리도 자립 상담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2018년 법 개정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추가되어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이 지원 대상임이 명확해짐
- 2019년부터는 취업 빙하기 세대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어 40대도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 불안과 취업난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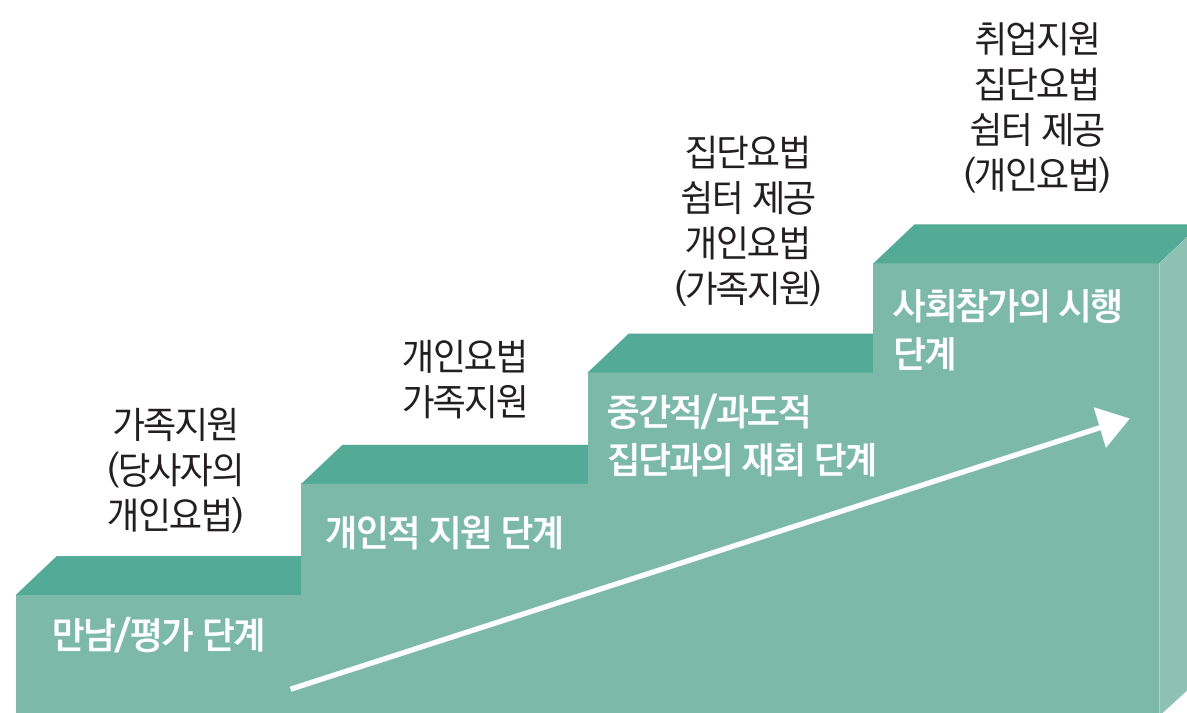
[표 1. 히키코모리 지원의 주요 흐름]

연대	지원명	지원의 방침	주요 지원 내용	과제
1990년대 전반	프리스페이스·프리스쿨 운동	부모의 의식과 태도가 변하고, 아이의 에너지가 차오르기를 기다림	쉼터에서의 학습 지원과 교류 활동	기다려도 쉼터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1990년대 후반	방문 지원	제3자가 직접 개입해 당사자를 외부로 이끌어냄	방문 활동, 공동 생활, 직업 훈련	상반된 생각에 기초한 지원
	치료적 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당사자를 외부로 이끌	가족 상담, 통원	
2000년대 전반	부모회	‘동료’로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가족을 지원	가족 상담회, 연수회, 정보 제공	지원자 대응의 과제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의 지원	공적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 구축	상담 창구 제공	다수의 지원창구 존재
2000년대 후반	취업 지원	사회 참여의 경로로서 직접 취업으로 이끌기	직업 지원, 자원봉사	지원활동의 중단 문제와 불안정한 지원
2010년대 이후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의 지원	국가의 조직적인 정신보건복지 대책	상담 창구의 제공, 방문 지원	상담에 임할 수 없는 당사자가 존재
	당사자의 활동	자신의 요구를 발신, 사회에 문제 제기	피어 서포트	지속가능성의 문제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법	생활보호나 장애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포함	자립상담, 취업지원	지역복지사회의 개념 재정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취업 지원	

자료 : 佐藤^{vi)}, 船越^{vii)}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에서 본 과제

- [히키코모리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ix)}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원을 가족 지원에서 시작해, 당사자의 심리적 지원, 데이케어나 쉼터와 같은 중간적·과도적 집단과의 재회를 거쳐 사회활동(취학, 취업)을 목표로 각 단계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그림 1)
-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은 사례에 따라 다르며, 이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기존 지원의 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원 시설에서 이루어져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에 방문해야 지원이 시작됨
 - 집에 머물러 있는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만남·평가 단계에서의 지원이 닿지 않음
 - 또한 집에서 쉼터로 나가더라도 쉼터에만 머무르고 사회 참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적·과도적 집단에서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이행지원이 부족한 점이 과제로 지적됨
 - 일부는 사회 참여 시도 단계에서 다시 히키코모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
 - 이는 현재의 지원 체계가 취업 지원 등 외적 요소에 치우쳐 있어, 당사자 개인의 상태와 내면적 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이시카와^{x)}는 히키코모리에서 회복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각 당사자에게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당사자의 갈등과 고민을 공감하며 함께하는 “당사자 의식”을 중시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기존의 조직과 달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이 모인 자조 그룹에서는 당사자에게 안전하고 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활동이 확장되면서 리더격 멤버의 부담이 커져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자료 : 히키코모리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림 1. 히키코모리 지원의 각 단계]

시사점

❖ 취업 중심의 지원에 앞서 심리적·사회적 지원 강화

- 일본의 지원 체계는 당사자의 사회 복귀, 즉 취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당사자의 심리적·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re: 히키코모리로 (引きこもり)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사회 복귀 경로 제공

-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활동, 자원봉사, 취미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사회 복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조 그룹 및 커뮤니티 지원 강화

- 일본에서는 자조 그룹과 같은 당사자 주체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리더격 멤버에게 큰 부담이 가해지면서 그룹의 유지와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발적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자조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조 그룹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맞춤형 지원 시스템의 개발

- 히키코모리 상태는 개인마다 다양한 원인과 형태가 있으며, 회복 속도도 다름. 당사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상담자나 지원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넘어선 유연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지윤 통신원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기술보좌원

jiyoon-k@iis.u-tokyo.ac.jp

The University of Tokyo

- i) 工藤定次, 斎藤環: 激論! ひきこもり. ポット出版, 東京, 2001.
- ii) 斎藤環: 社会的ひきこもり—終わらない思春期—. PHP 研究所, 東京, 1998.
- iii) 厚生労働省: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市町村で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援助するか—.
- iv) 大嶋寧子: 若者就労支援の「これから」を考える—既存政策の支援領域は十分広い. しかし, 個別施策には改善余地が存在—. みずほ総研論集, 37, 31-64, 2014
- v) 斎藤環: ひきこもりと精神医療・総論. 医学のあゆみ, 250 (4), 243-246, 2014.
- vi) 石川良子: 社会問題としての「ひきこもり」(1) —「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を用いての検討—. 松山大学論集, 27 (3), 121-135, 2015.
- vii) 佐藤隆也, ひきこもり支援の変遷と課題, 川崎医療福祉学会 Vol.28 No.1, 2018, p.27-36, <https://core.ac.uk/reader/186623770>
- viii) 船越明子, ひきこもりの理解と支援, https://www.hyogo-jinken.or.jp/wp/wp-content/uploads/2021/05/No22_P67-79.pdf
- ix) 厚生労働省,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10
- x) 石川良子: ひきこもりの「ゴール」—「就労」でもなく「対人関係」でもなく—. 青弓社, 東京, 2007